

# 꼼꼼한 현장채록 바탕한 민속춤 이론서

「韓國의 民俗춤」 펴낸 정병호 교수

대다수 기층민에 의해 향유되고 전승되어온 우리 고유의 민속춤은 그것을 배대한 기층문화의 면모와 성격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소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모를 심는 논두렁이나 김매는 들녘, 나무를 하고 꿀을 베던 산자락에서, 또는 달 밝은 밤 당산나무 밑에 모여 쇠를 치거나 북을 두드려 흥을 돋구기도 하고, 지니고 있던 지게목발이나 바가지로 장단을 맞추어가며, 난장을 이루되 끝내 한덩어리로 모이게 만들었던 우리의 민속춤은 우리 문화에 내재된 원형성의 상징이자 삶의 희노애락을 반영하는 몸짓언어에 다름아닌 까닭이다.

“문헌상의 기록이 전무한 채 입에서 입으로 몸에서 몸으로 전승되어온 민속춤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채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민속문화의 근간이 되는 농경문화가 도시화, 현대화에 의해 사라져감에 따라 민속춤도 함께 소멸되어가는 실정 이어서 민속춤의 원형을 기록하는 일은 더없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속춤 연구에 있어 현장탐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정병호 교수(중앙대 무용학과, 64)는 이미 지닌 60년대 말부터 민속춤의 현장을 조사, 발굴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채록하고 정리하는 일에 힘을 쏟아왔는데 그런 그가 최근 「韓國의 民俗춤」(삼성출판사)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동안 채록, 수집한 자료와 연구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속춤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한편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밝힌 이 책은 민속춤의 총체적 면모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국내 최초의 저서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평가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기왕에 진행된 민속춤에 관한 연구나 논의들의 대부분이 민속학적 관점에서 춤의 성격이나 기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 것이었음에 비해, 무용학이라는 관심하에 민속춤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모은다.

## 민속춤 총괄한 개론서

이 책에서 그는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사용되어오던 민속춤의 개념을 한국춤이라는 전체 체계속에서 보다 선명하게 규정하는 것을 우선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속춤의 개념은 외국의 그것에 비해 다소 포괄적이다. 가령 일본의 경우 춤을 분류할 때 의식무용이나 예능인들이 추는 춤은 별도로 종교의식무용으로 묶고 민중들이 추는 집단춤만을

민속춤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것. 이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의식무용이나 예능무용과 민속춤이 구분되지 못하고 의식무용인 불교무용이나 무당춤, 예인들이 추어온 살풀이춤이나 승무, 태평무 같은 춤도 포함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국춤이 지니는 총체적 성격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분류상의 어려움과 개념의 모호함은 결국 연구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우리 민속춤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는 혼란을 낳는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때문에 그는 이 책에서 한국춤을 보다 다층적인 분류를 통해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민속춤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속춤의 유형에 속하는 춤들은 기능상의 분류법으로 볼 때 농악을 비롯하여 탈춤, 소리춤 같은 대동춤적 성격과 이러한 춤판에서 추어진 허튼춤과 모방춤 등 개인적 표현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민속춤의 특징을 기능상의 분류법으로 볼 때 민중적인 춤이라 할 수 있고, 사회과학적 분류법으로 보았을 때는 서민계층의 축제적인 춤이고 예술적 분류법에 있어서는 민속적 예술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책은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민속춤으로 규정된 다섯춤 즉, 농악, 탈춤, 소리춤, 허튼춤, 모방춤을 기본 뼈대로 하여 때로는 고유한 형태로 때로는 영향을 주고 받아 유사한 형태를 띠기도 하는 전국 각지의 민속춤 70여종을 고찰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현장답사를 통해 발굴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민속춤은 거의 다 채록했다는 판단과,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이 분야 연구를 위해 이들을 체계화하여 기초자료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책임감에서 이번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따라서 깊이 있고 전문적인 논저라기보다는 민속춤 전반을 총괄한 개론서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인데 이 책의 이러한 성격은 소주제들의 목록에서 보다 선명하게 확인된다.

민속춤의 개념, 역사, 내용, 구성, 음악, 춤판, 춤사위, 성격, 표현, 사회적 기능, 각 지방의 민속춤 등이 그것으로 이 책은 이러한 소주제들을 총 11개의 장으로 묶어 놓고 있다.

민속춤의 역사, 성격, 표현, 사회적 기능을 다루고 있는 장(2·8·9·10장)은 민속춤에 내재되거나 표현된 것을 각각의 주제에 따라 고찰하고 분석해낸 것이다. 이들 중에서 민속춤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을 살피는 일은 민속

“누구의 강요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 민중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전승되어온 민속춤은 생활과 결부된 大同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의 민속춤은 농경적인 생활무용에서 마을축제의 춤으로 그 기능을 달리하여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병호교수.

춤이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기능을 파악하는 기초가 된다. 우리 민속춤의 기원을 찾기 위해 각종 고문헌의 기록과 기왕의 연구성과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그는 그 기원을 고대 제천 의식에서 찾는다. 무당들이 신과 인간을 교류시키기 위해 춘 춤은 탈을 쓰고 추거나 노래나 악기를 동반하기도 했을 것이고, 이들이 선도가 되어 마을사람들과 함께 길놀이 춤이나 원무를 하기도 했으리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농악, 탈춤, 소리춤 등 총체적 예능의 기원은 고대 제천의식에서 비롯되었으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고 이는 우리 학계의 통설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속춤의 역사적 변천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것은 민중의식의 발달과 노동의 역사이다.

“고대의 민중은 신과 자연과 인간과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주술중심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무속적인 춤과 농경적인 즉흥춤이 나왔고, 인간의 인격화가 이루어진 인간화 단계에서는 외래적인 춤의 영향을 조금씩 받으면서 보다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고, 인간과 사회적 제도의 모순이 인지되는 단계에서는 풍자적이고 공동체적 기능이 강한 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성과정을 거처온 우리 민속춤은 놀이적 요소를 비롯하여 종교, 음악, 연극적 요소를 아울러 지닌 총체성을 띤다. 그리고 우리

민속춤에는 환과 정과 환희의 미의식과 신명의 심성, 자연순응의 심성, 낙천성과 풍자적인 우리 기층민들의 심성과 의식이 내재되어 있고, 그 기능 또한 농경생활과 결부된 두레적 기능과 내적인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체적 기능, 그리고 생활에서 겪는 응어리진 감정을 푸는 삶의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 각 지역에 산재하는 '소리춤'

이러한 역사와 특성을 지니는 우리의 민속춤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추어졌는가를 밝힌 것이 민속춤의 세부적인 사항을 ‘해설’한 부분이다.(3·4·5·6·7장) 몇몇 정도의 인원이 어떠한 형식과 순서로 춤을 추었으며 그 춤이 이루어진 춤판은 어디였으며 어떤 구조인가, 춤꾼들이 입었던 춤옷과 장식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이들 춤에 곁들여지던 음악은 어떤 악기에 의해 어떤 형태로 연주되었던가 등 무용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이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빠뜨림없이 세심하게 살핀 그의 관심은 우리 민속춤의 춤사위에서 보다 오래 머문다. 지난 81년에 춤사위만을 따로 묶어 책으로 펴내기도 했던 그는 우리 민속춤사위의 생생요인을 종교의식, 모방, 전투놀이, 풍자, 음악, 무복과 장식 등에서 찾는다. 사악한 신을 상징하는 地神을 물리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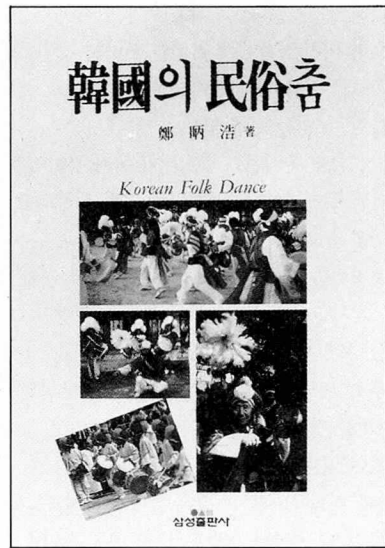
민간신앙의 지신밟기에서 발디딤에 따른 춤사위가 형성되었으며, 학춤, 개구리춤 등은 모방적 요인에서 춤사위가 생성됐다는 것. 이밖에도 농악에서 볼 수 있는 진풀이, 북춤 등은 전통무의적 춤사위라 할 수 있고 탈춤에 등장하는 취발이, 할미와 영감춤 등은 풍자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그러나 우리 춤사위의 특성은 무엇보다 땀고(靜) 어르고(中) 푸는(動) 세가지의 기본요소를 함께 지닌다는 데서 확연해진다. 그는 강조한다.

이 책의 1장에서 10장에 이르는 부분이 우리 민속춤의 전체적인 특성과 구조를 논한 총론에 해당된다면, 면수로 이 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마지막 11장 '각 지방의 민속춤'은 개별적인 춤 하나하나를 언급하고 있는 각론부분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지만 기후적으로 한대와 온대에 걸쳐 있고 산악과 평야지대가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언어나 풍속도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양태의 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교류를 통해 변천한 것도 있습니다.”

민속춤의 지역적 분류가 의미를 지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그는 농악의 경우, 경기, 충청, 영동, 영남, 호남우도, 호남좌도로 나눈다. 이밖에 탈춤을 향촌형, 도시형, 유랑형으로, 소리춤을 경기, 영동, 호남, 영남, 함경도로 나누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 지방에 남아 있는 민속춤 각각의 유래와 내용, 형식을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장에서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소리춤'의 소개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 소리춤은 춤꾼 스스로 노래를 부르면서 추는 춤을 통칭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러한 종류의 춤으로는 강강술래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때문에 이 춤은 민속춤의 범주에서도 빠져 있었던 것인데 정교수가 현장답사를 통해 각 지역에 산재하는 소리춤을 찾아 정리함으로써 민속춤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속춤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가운데 추는 춤만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리춤이야말로 그 질박한 사실과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몸짓을 통해 서민의 심성을 가장 잘 반영한 핵심적인 민속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책을 통해 '소리춤'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 '춤꾼'에서 학자의 길로

해방 이후 차범석, 최창봉, 조동하씨 등과 함께 '한기봉 무용연구소'에 들어가 현대무용을 배운 것으로 시작되는 그의 춤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우리 민속춤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춤꾼으로서의 길을 버리고 대학원에서 학문으로 춤을 만나려 했을 때 그는 먼저 서양춤을 택했었다고. 그러나 언어나 정서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 부족의 한계는 그의 관심을 보다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성격을 띤 원시무용으로 돌려 놓았고 그는 그것을 위해 아프리카의 원시민족의 마을로 가고자 했다. 학교 측의 이해와 지원의 부족으로 그 꿈이 좌절되고서야 그는 우리 민속춤으로 관심을 돌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할아버지가 굉장한 대농이셨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50여명이 넘는 농사꾼들이 자체적으로 농악대를 만들어 흥을 돋구곤 했었는데 그것이 하도 좋아 매를 맞아가며 농악대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느끼게 되는 원초적인 정서였겠지요. 내가 민속춤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었던 뿌리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민속춤을 연구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은 무엇보다 근대화의 미명하에 우리 민속춤의 현장을 훼손시키는 것이 예사였으며 궁중무용이나 양반층의 춤에 비해 형편없는 홀대와 무관심을 받던 우리 민속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던 것 같다.

60년대 말부터 비롯된 그의 민속춤에 대한

관심이 한편으로는 현장의 발굴과 그것의 이론화, 체계화를 위한 학문적 노력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발굴한 민속춤의 대중화를 위한 실천적 시도로 진행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춤사위」 「한국춤」 「농악」 「민속론」 등의 저서와 많은 논문들이 그 이론적 작업의 결실이라면, 「공간」 「전통문화」 「문예진흥」 등의 잡지에 자리를 옮겨가며 6년 만에 걸쳐 게재했던 현장탐방기와 자비를 들여가며 기획했던 YMCA강당에서의 공연을 통해 발굴한 이동안, 양순룡, 김문달씨 등 민속예술 연희자들은 실천적 노력의 성과들이다.

민속춤은 누구의 강요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승되어온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춤임을 강조하는 그는 민속예술경연대회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보존되는 춤은 이미 민속춤으로서의 의미를 잃은 것이라고 말한다.

“민속춤이란 실생활에 결부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볼 때 오늘의 민속춤은 농경적인 생활무용에서 마을 축제의 춤으로 그 기능을 달리하여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을사람 스스로가 찾고 추는 춤으로서 자연보존되고 생활속에 뿌리내려지는 마을춤을 통해 우리 민속춤의 의미를 이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그는 이를 위해 '마을춤진흥회' 같은 형식의 모임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 모임이 만들어지면 회장을 맡고 싶은 것이 그의 소박한 욕심이다.

—박남정 기자

## 계몽시대의 철학

I. 벌린 지음/정병훈 옮김/6,500원

18세기 영국 경험론을 중심으로 계몽주의 시대의 경험주의적 철학과 그에 대한 비판을 소개한다. 로크, 버클리, 흄 등의 주요 저작의 핵심부분에 대한 벌린의 해석이 실려 있다.

## 마르크스주의 종교이론

D.B. 맥크론 지음/강돈구 외 옮김/5,500원

마르크스주의를 이데올로기로 매도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종교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이 책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카우츠키를 통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종교이론의 강점과 약점을 밝힌다.

## 현대철학과 사회

신일철 외 지음/9,000원

신일철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으로 현대철학 특히 20세기 철학을 영, 미, 유럽, 중국철학 등에 걸쳐 전체적으로 개관하면서 현대 철학의 초석을 놓은 철학자와 철학사조에 대해 고찰한다.

## 진리와 해석

이영철 지음/5,500원

이영철 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출판한 것으로, 데이비드슨의 원초적 해석론이 지니는 의의와 쟁점들을 현대 언어 철학의 전반적 논의 맥락 속에서 다루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